

'97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홍보부 -

사료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동안 양축인들은 사료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수 결합과 타 업종과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부정적인 입장은 견지해 오다가 지난 '95년부터 부업농 가(1만수 이하)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가, 다시 규모 폭을 확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는데, 조세감면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사료에 부과되었던 부가세의 영세율이 전면적 용되어 양계농가에는 실질적으로 5~6%선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하 효과를 나타내 생산비 절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후 단미사료까지 부가세가 영세율이 적용되어 축산농가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한발 앞서게 되었다.

'97한국양계 박람회 성황리 개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97한국양계박람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KO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번째 행사로 치러진 '97 한국양계박람회는 그간 수입개방이란 압박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던 양계인들에게 다소나마 자신감을 심어주는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행사 보다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 향상에도 관심을 보여 앞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생산을 위한 교육적 홍보 효과도 함께 거두어 양계인과 양계산업 관련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입기자재 일색에서 이번 행사에는 국산 기자재가 대거 선보여 시설자동화에도 국산화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 비춰지기도 하였다.

또한 양계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20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면서 합

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경영부문, 봉사부문, 학술연구부문, 특별부문 등으로 구분 양계대상을 시상하였는데 본회에서는 상패 및 50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을 봉정하고 앞으로도 양계대상 시상을 매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사 종료후 평가회를 통하여 한국축산박람회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양돈, 낙농 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99년 11월에 '99 한국축산박람회를 개최키로 확정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닭고기 7.1부로 전면 수입개방

UR협상 결과에 의해 닭고기의 수입개방은 '93년부터 미절단 신선육을 필두로 수입이 허용되면서 실제로는 '95년부터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거 쿼터제로 냉동육이 수입개방되다가 '97년 7월 1일자로 물량제한 없이 수입이 전면 자유화 되었다.

연도별 수입 닭고기 관세율 현황

구분	'94			'95		'96		'97		'98	'99	2000	2004 부터
	상반기	하반기											
관세 (%)	20	20	20	20	30.5	28.7	27	25.5	20				

이때 수입관세가 20%에서 30.5%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2004년까지 매년 낮아져 최종에는 20%로 낮추어 지도록 되어 있으나 전면 수입개방 초년도인 금년 하반기에 국내

육계가격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이후 10월 30일 현재까지 8,277톤이 수입이 되어 연말까지 수입될 양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량의 약 5%선까지 도달될 전망이어서 국내산 육계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시점에서 그간 가공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생산부문은 농림부가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원화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왔으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하여 매번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금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 가공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쳐 행정입법이 불가능해져 축산관련단체, 학회, 농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 236개 단체가 공동으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회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과 복지위원회안으로 올라온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팽팽히 맞서다가 축산물위생처리법만을 본회로 상정시켜 통과됨에 따라 마침내 축산물 가공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되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닭고기 수입자제 요청

닭고기는 금년 7월 1일부로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전면 수입자유화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육계관련인들이 국내 육계 가격이 1,200원대/kg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수입 육은 경쟁력이 약해 실제 수입량은 적을 것으로 낙관을 하였으나 수입개방이 된 직후부터 수입업체들이 국내 육계가격에는 개의치 않고 상당량의 닭고기를 수입, 국내 육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본회는 각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양계인들의 입장을 담아 닭고기 수입 자체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업체는 입장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수입물량을 줄이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계획대로 수입에 참여해 상당량의 닭고기를 수입하여 금년 하반기 국내 육계가격에 큰 타격을 주었다.

국내 육용 원종계 수입농장 재편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육용원종계는 D라인을 기준할 때 약 10만수대이다.

품종은 로스, 아바에이카, 에이비안, 하바드, 코브, 하코 등인데 이번에 하바드는 수입이 중단되고 아바에이카와 로스를 삼화농원이 공급하게 됨에 따라 물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약 60% 이상을 한 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육용원종계를 도입하여 종계를 생산하는 업체로는 삼화농원, 중원농장, 하림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육계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인한 종계가격의 하락으로 원종계 수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9만 수 이내에서 머물렀다.

앞으로 원종계 수입농장들은 실용계용 병아리 생산 공급 보다는 종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종계 육성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 IB 사독오일 백신 개발

닭에 있어 전염성기관지염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커져왔다.

'80년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백신이 수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철저한 역가검정 후 지속적인 백신만 이행하면 어느 정도는 발병을 차단할 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이형이 나타나 기존의 백신만으로는 역가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양계농장의 피해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한국형 IB 사독오일 백신을 개발,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여 2월부터 약품이 출시되어 육계, 산란계, 종계 농가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다.

육계가격 저조, 잇단 계열주체 부도

육계가격이 소비감소, 수입증가로 인하여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2~3중 시세가 형성되는 가 하면 어음 부도율의 증가 등으로 육계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그간 건실한 계열업체였던 영육농산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여 신동방에 경영권을 넘겼는가 하면, 풀그린 식품도 부도를 내 계열화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육계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육이 대체되고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어 소비가 격감하는 바람에 가격 유지가 어려워져 계열주체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닭고기를 투매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채산성을 더욱 나쁘게 하여 부도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감소 육주사료 제외 전체 감소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매년 평균 4%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아직 최종 집계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약 2.5%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병아리 사료는 0.4%가 증가를 하였지만, 산란계 2.6%, 육계 2.4%, 종계 5.6%가 각각 감소하여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설자동화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사료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수입량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의 결과로 오히려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질병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육용 병아리 및 종란 폐기 생산조절 자구노력

육계의 생산량 증가로 출하가격이 8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병아리 가격도 100원대 이내에서 장기간 유지되었던 금년 4월에 종계업자들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3주간에 걸쳐 병아리 260만수와 종란 180만개를 폐기처분하였다.

병아리는 하림과 풀그린에서 랜더링을 하였고, 종란은 식란으로 처분 서울·경기양계축협의 난가공 공장에서 전량 액란으로 소진시켰다.

감산운동에는 25개 종계·부화업체들이 자진 참여하여 생산규모에 비례해 폐기처분량을 할당하여 실시하였고, 계열주체도 합류하여 감산 효과를 높였다.

이 결과 6~7월의 육계가격은 약간 회복을 하였으나 반발 기대심리가 작용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양계**

**계란 하나 건강 하나,
방긋웃는 우리 가족**